신건 전주 완산갑 출마… '鄭-辛 무소속 연대' 현실화

'우려가 현실로'… 민주 안방 분열

신 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4·29 재보선 전주 완산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함에 따라 민주당이 우려해왔던 '정동영-신 건'의 무소속 연대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텃밭인 전주 덕진과 전주 완산갑 2곳의 재보선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정동영-신 건 무소속 연대'가 정면충돌하게 됐다. 이는 사실상의 '집안싸움'으로 재보선 선거 이후, 복당 및 당내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향후 벌어질 민주당의 험로를 예고했다.

신 전 원장은 15일 오후 무소속으로 전주 완산갑 4·29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초 신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16일 오전으로 미뤘고 마감시간이 임박해 후보 등록을 끝냈다.

신 전 원장은 이날 정동영 후보와의 연대에 대한 질문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순수한 전주시민으로 전주 발전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신 전 원장은 동교동에서 출마를 만류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의 무소속 연대는 현실화됐으며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와 정동영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5일 인천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4·29재보선 후보인 홍영표의 지지를 부탁하며 GM 대우 회생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당지도부 전주 총출동 향후 지원 유세

이와 관련, 정동영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일단 신 전 원장 측이 무소속 출마 배경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 뒤 연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해 '무소속 연대는 해당 행위'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무영 전 의원이 신 건 후보 지지에 나섬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전주 재보선 2곳 모두 완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동영-신건의 무소속 연대는 '해당 행위'라며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당장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전주에 총출동, 현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덕진과 완산 갑 지원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무소속 연대와 관련, "제1야당인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재보선 선거 결과 등을 놓고 민주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5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전패할 경우, 지도부 총사퇴 및 조기 전당대회론이 부상할 전망이며 인천 부평을과 전주 완산갑 등에서 승리할 경우,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 문제를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에 한바탕 분란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00만불 왜 조세피난처 회사 유입 됐나

'노무현 600만불' 갈수록 미스터리

100만불 전달 경위·용처도 엇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았다고 의심을 사고 있는 600만 달러에 대한 궁금증이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100만 달러' 요구(?)·용처는=박 회장과 검찰,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와 관련한 전달 경위와 용처에 대해 크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2007년 6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00만 달러를 마련해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받아썼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서 그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해 6명을 구속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통화기록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의 해명대로 권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100만 달러를 받아썼다면 왜 달러로 받았는지, 용처를 왜 밝히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검찰은 당시 유학 중이던 아들 건호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00만 달러'는 왜 조세피난처에=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의 경우도 연씨 측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500만 달러'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의문이 많이 생긴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연씨의 타나도 인베스트먼트 홍콩 계좌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연씨는 이 가운데 300만 달러를 자신이 세운 다른 회사 '엘리쉬&파트너스'로 넘겼다.

노 전 대통령 측은 500만 달러가 건호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아들 건호씨는 '엘리쉬&파트너스'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식으로든 건호씨가 500만 달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여기에 연씨가 돈을 받을 시점 직전에 건호씨가 두 차례나 박 회장을 찾아간 부분도 이 같은 '연관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도 정 전 비서관이 연씨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신의 장인인 건평씨가 박 회장과 더 가까운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이렇다 할 뚜렷한 투자계약서가 없는 것도 의문이다.

나아가 500만 달러를 타나도에서 받은 뒤 곧바로 투자를 하지 않고 건호씨가 대주주로 알려진 엘리쉬로 옮겨가 투자된 점이라든지, 이들 회사가 모두 조세피난처에 있다는 점 역시 정상적인 투자금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박연차에 강금원 불똥까지… 괴로운 민주

"재보선 앞두고 너무한다" 당혹

"이번에 털고 가자" 주장 제기도

재보선을 앞두고 '박연차 리스트'에 이어 '강금원 리스트'마저 불거진데 대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당장 '야당 흠집내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메가톤급 파장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보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부 동력을 만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민주 진영의 핵심 가치인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외부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위기감은 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끝이 어디냐"라며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원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에 눈을 흘기고 있다.

최종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잇달아 흘리면서 사실상의 여론 재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참여정부를 감싸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검찰이 마치 중계방송을 하듯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점에서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계속하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와 민주당을 한 집안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지역의 한 의원은 "이제 과거의 민주당 프레임으로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없다"며 "뉴 민주당 플랜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천군만마 얻은 민주당

정대표 재보선 도움 요청

손학규, 지원 유세 참여

4·29 재보선 전패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강원도 춘천에서 칩거해온 손학규(사진) 전 대표가 15일 민주당 지도부의 도움 요청을 수락, 지원유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정세균 대표가 이날 인천 부평을 지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전화를 걸어 "재보선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자 "당이 필요로 한다면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선대위원회에서 공식 직함을 맡지는 않고 선거기간 최대 승부처인 인천 부평을과 경기 시흥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유세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손 전 대표의 인지도나 수도권내 득표력을 감안할 때 당으로선 큰 원군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재보선 '5대 0' 패배 공포

무소속·군소정당 선전… 낙승 자신 못해

4·29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 모두에 '5대0' 패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아직은 걱정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지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5개 지역 어느 하나 양당 모두 낙승을 자신할 곳이 없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친이 정종복 전 의원과 무소속인 친박 성향의 정수성씨 사이의 '친이-친박'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경주가 1차적 문제다. 이미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친박 무소속, 친박 연대 후보들에게 관판이 깨진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경주는 유난히 박정희 전 대통령 향수가 강한 지역이어서 예측이 어려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의 두 선거구는 약세가 확실하고 울산 북구의 경우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진보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패배를 예상하기가 더 쉽다.

민주당 역시 'DY-신건' 무소속 연대가 가시화되며 낙승을 기대했던 전주 덕진과 전주 완산갑에서 불안한 싸움을 하게 됐다. 만약 무소속 바람이 분다면 영남 2개를 포함해 4개 지역에서는 승리를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양당 모두 4곳에서 패한다면 인천 부평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